

## 의·보건 계열 대학생의 음주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김광환<sup>1</sup>, 한진숙<sup>2\*</sup>

<sup>1</sup>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sup>2</sup>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on Drinking Culture

Kwang hwan-Kim<sup>1</sup> and Jin Sook-Ha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의·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을 파악하여 음주인식이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지방의 두 도시에 소재한 의·보건 계열 대학생 153명을 랜덤 샘플하여 의학 계열 86명과 보건 계열 67명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보건 계열 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지난 1년간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가 75.8%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 $p<.001$ ),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p<.01$ ), ‘친한 친구들과 자주 과음 한다’,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 $p<.05$ )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든 변수들이 4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으로 학습한 의·보건 계열의 대학생들은 음주량이 적고 폭음하는 경향이 적다. 이들의 인체와 음주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음주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rinking awareness of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in a bid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ir drinking awareness on drinking.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53 student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colleges located in two different cities in the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may 1 to september 20, 2011 with total 153 college students. Out of them, 86 students majored in medical departments, and 67 students were in the health-related departments. After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A great deal of the students who accounted for 75.8 percent were ever disturbed in daily routine life by drinking over the past year. As for the influence of drinking awareness on the amount of drinking, the amount of drinking was unde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following five items. The first was that alcohol was an energizer( $p<.001$ ), and the second was that drinking led to a sound sleep( $p<.01$ ). The third was that I drank too much with my close friends often( $p<.05$ ), and the fourth was that alcohol used as a hangover-chaser was conducive to a hangover( $p<.05$ ). The fifth was that alcohol had the largest impact on the liver( $p<.05$ ). All the variables made a 43.4% prediction of the amount of drinking.

In conclusion, the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who learned about the impact of drinking on the human body in a firsthand or secondhand manner had a tendency to drink a less amount of alcohol and do less binge drinking. It's advis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knowledge of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on the human body and drinking as resources of anti-drinking education.

**Key Words** : Drinking culture, Awareness

\*교신저자 : 한진숙(jshan@konyang.ac.kr)

접수일 11년 10월 31일

수정일 11년 11월 09일

게재확정일 11년 11월 10일

## 1. 서론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최고수준의 정신기능이나 다행감을 얻기 위해 음주자로 하여금 심리적 갈망을 하게 한다. 심리적 갈망은 심리적 의존을 유발시켜 알코올 의존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개인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1]. 이러한 알코올로 인한 손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성인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2].

대학생들의 음주의 이유가 개인적인 감각추구와 대학생활에서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이나 성적이 대학생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으나[3], 이들의 음주는 학습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감이나 일탈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일정량이 넘어서면 과장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4]. 음주 횟수가 증가 할수록 자제력이 상실되고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게 된다. 계속되는 음주는 성격이 난폭해지며 죄의식도 감소하게 되어 그 결과 성폭력이나 폭력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 최근에 발생한 음주 사망 사건이나 학내 폭력사건, 성폭력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5]. 대학 시절의 음주는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음주가 계속되고 그 결과 업무집중력이 저하되어 생산성도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6].

대학생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 관련 단체 등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음주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알코올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90%를 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미온적인 대책이나 관심은 이러한 대학생 음주 상태를 유지 혹은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윤명숙 등[7]은 그의 연구에서 대학생 대상자의 68.3%가 절주 경험이 없으므로 이들은 문제 음주자 군으로 진행되어 폭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하고 그 폐해가 단순히 대학생 시절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자로 진행될 수 있고 폭음을 하는 경우 알코올 의존이 될 확률이 비폭음자보다 3배나 높다[8]. 대학 시절의 음주행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며 이는 스트레스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절주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학 내 음주 환경을 개선하여 음주문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9-11].

우리나라의 대학생 음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음주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음주행태, 음주관련 문제, 폭음,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12-16]. 그러나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으로 학습한 의·보건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의·보건 계열 대학생의 음주 인식을 파악하여 음주인식이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가 시도되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C시와 D시에 소재한 대학생 중 의·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을 의·보건 계열로 선정한 것은 일반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알코올로 인한 인체의 영향을 다소라도 학문적으로 접한 의·보건 계열 대학생들이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의 알코올 인식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여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후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음주요인에 대한 내용은 알코올 사용정도 국제척도 자료와, 대한보건협회의 설문지를 토대로 의·보건 계열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피조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문항, 음주량 상태 3문항, 음주 인식도 7문항으로 구성하여 모두 12문항이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1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인식에 따른 음주량에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음주 인식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들의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점수화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의학 계열 학생들은 성별에서 남학생이 18명(20.9%), 여학생이 68명(79.1%)이고 거주지는 기숙사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은 34.9%, 자취방은 20.9% 순이었다. 보건 계열 학생들은 남학생이 8명(11.9%), 여학생이 59명(88.1%)이고 거주지는 자취방이 47.8%로 가장 많았고 집은 31.3%, 기숙사가 20.9% 순이었다. 의학 계열과 보건 계열 간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거주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2) 단위 : 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일반적 특성	의학 계열	보건 계열	합계	X <sup>2</sup> -test	p-value
성 별				2.158	0.142
남자	18(20.9)	8(11.9)	26(17.0)		
여자	68(79.1)	59(88.1)	127(83.0)		
거주지				14.448	0.001
기숙사	38(44.2)	14(20.9)	52(34.0)		
집	30(34.9)	21(31.3)	51(33.3)		
자취방	18(20.9)	32(47.8)	50(32.7)		
합 계	86(56.2) (100.0)	67(43.8) (100.0)	153(100.0) (100.0)		

### 3.2 음주량 상태 및 음주 인식도

#### 3.2.1 음주량 상태

의학 계열과 보건 계열 대학생의 음주량 상태를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의학 계열 대학생들은 술 마시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이하가 67.2%로 가장 많았고 한 번에 소주 마시는 양은 ‘소주 3-4잔’이 38.8%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는 ‘있다’가 76.1%, ‘없다’가 23.9%로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보건 계열 대학생의 술 마시는 횟수는 ‘한 달에 1번 이

[표 2] 음주량 상태

단위 : N(%)

[Table 2] Alcohol consumption status

음주량	의학계열	보건계열	합 계	X <sup>2</sup> -test	p-value
술 마시는 횟수				3.740	0.154
한 달에 1번 이하	45(67.2)	45(52.3)	90(58.8)		
한 달에 2-4번 정도	19(28.4)	33(38.4)	52(34.0)		
일 주일에 2~3번	3( 4.5)	8( 9.3)	11( 7.2)		
한 번에 소주 마시는 양				3.804	0.283
소주 1-2잔	19(28.4)	21(24.4)	40(26.1)		
소주 3-4잔	26(38.8)	24(27.9)	50(32.7)		
소주 5-6잔	11(16.4)	18(20.9)	29(19.0)		
소주7 잔 이상	11(16.4)	23(26.7)	34(22.2)		
지난 1년 간 음주로 인해 생활에 지장 받은 경우				0.006	0.939
있다	51(76.1)	65(75.6)	116(75.8)		
없다	16(23.9)	21(24.4)	37(24.2)		
합 계	67(43.8) (100.0)	86(56.2) (100.0)	153(100.0) (100.0)		

하'가 52.3%이고 한 번에 소주 마시는 양은 '소주 3-4잔'이 27.9%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는 '있다'가 75.6%이고 '없다'가 24.4%로 나타났다. 의학 계열 학생과 보건 계열 학생 간의 각 음주량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2.2 음주인식도

의학 계열 대학생과 보건 계열 대학생의 음주 인식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의학 계열 학생들은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가 평균 0.65로 가장 높았고,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가 평균 0.58로 나타났고,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가 평균 0.38로 인식하였다.

보건 계열 학생들은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가 평균 0.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가 평균 0.37로 나타났고,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가 평균 0.15로 인식하였다.

의학 계열 학생과 보건 계열 학생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음주 인식도 문항은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 $p<.01$ ) 문항과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p<.01$ ) 문항이었다.

### 3.2.3 의학 계열 학생과 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미치는 요인

의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미치는 요인은 표 4와 같다.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p<.001$ ),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p<.01$ ), '친한 친구들과 자주 과음한다',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p<.05$ )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든 변수들이 4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 4. 고찰 및 결론

대학생의 음주는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90%를 넘어 성인의 음주율보다 높게 유지되어 왔다. 대학생들은 음주가 대학문화라고 착각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음주문화가 미치는 영향

[표 3] 음주인식도

[Table 3] Alcohol awareness

단위 : Mean±S.D.

음주인식도	의학 계열	보건 계열	합 계	t	p-value
술에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0.06±0.23	0.01±0.12	0.04±0.19	1.865	0.174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0.65±0.48	0.37±0.48	0.53±0.50	12.486	0.001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0.14±0.34	0.07±0.26	0.11±0.31	1.602	0.208
임신중 술 1잔 정도는 좋다	0.05±0.21	0.12±0.32	0.08±0.27	2.782	0.097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0.38±0.48	0.15±0.35	0.28±0.45	10.838	0.001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0.02±0.15	0.06±0.23	0.04±0.19	1.322	0.252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0.58±0.49	0.46±0.50	0.53±0.50	2.132	0.142

[표 4] 의학 계열 학생과 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미치는 요인

[Table 4] Impact of drinking awareness on the amount of drinking in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모형	B	표준오차	t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0.234	0.077	-3.043***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0.246	0.085	-2.882**
친한 친구들과 자주과음을 한다	0.178	0.077	2.306*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0.399	0.194	2.061*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0.151	-0.152	-2.028*

(상수=1.406, R=43.4)

은 학습능력의 저하와 사고나 사건의 유발 등으로 그 폐해가 크다[11].

본 연구는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코올에 관해 직간접으로 학습하고 또 인체에 관해 학습을 하면 그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기초의학을 배운 의·보건 계열의 대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술 마시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경우가 의학 계열은 67.2%, 보건계열은 52.3%로 나타났는데 김종규의 연구에서는 남대학생이 한 달에 한 번 음주를 하는 비율이 1999년에는 31%, 2009년에는 9%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조사 대상자가 여학생이 83%를 차지하므로 차이가 있겠으나 또한 수시로 보는 시험의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한 번에 마시는 소주의 양에서도 의학 계열과 보건 계열이 차이가 있는데 의학 계열은 67.2%가 소주 3-4잔 이하인 반면 보건 계열은 5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주 7잔 이상에서 보건 계열이 26.7%로 의학 계열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의학 계열은 잦은 시험과 유급제도로 인한 압박감으로 과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정원철[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자가 일반 성인의 31.2%보다 높은 52.6%로 나온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1년간 음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는 두 그룹 모두 75%가 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천성수 등[18]이 음주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학습과 대인관계, 폭력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고, 석성재[19]의 연구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것이 47%, 경제적 문제 경험이 41% 등으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원철[3]의 연구에서 음주 후 후회한다는 비율이 남학생 48%와 여학생 43%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원인이 있으리라 본다.

음주 인식도에서 의학 계열 대학생은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가 평균 0.65로 가장 높았고, 보건 계열 학생들은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가 평균 0.46으로 가장 높았다. 의학 계열 대학생들이 음주가 간에 영향을 주기보다 기분을 북돋워 준다고 한 것은 음주량이 보건 계열보다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계열 모두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와,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문항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관련 지식과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의학 계열 학생과 보건 계열 학생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 ( $p < .001$ ), ‘술을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 ( $p < .01$ ), ‘친

한 친구들과 자주 과음한다’, ‘해장술은 숙취에 도움을 준다’, ‘술은 간에 제일 영향을 준다’ ( $p < .05$ )의 음주 인식도가 음주량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변수들이 4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대한 지식이 알코올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8] 볼 수 있는데 음주량에 있어서 타 대학생보다 소량의 음주를 하는 것은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그로 인한 질병이 유발되는 것을 학습을 통하여 습득하므로 음주에 대한 절제하는 습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절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대학 캠퍼스 내의 음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의·보건 계열은 생리학이나 병리학 등과 더불어 고학년이 되면 질병에 관해서 학습을 하므로 알코올의 효과는 물론 그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는 데 매우 적절하리라 본다. 음주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의·보건 계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유의한 방법이라고 본다.

## References

- [1] J. S. Lee, et al., *Psychiatric Nursing*, pp.537-539, Hyunmoonsa, 2011.
- [2] S. S. Chu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3, No. 2, pp.221-233, 2002.
- [3] W. C. Jou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1, pp. 347-372, 2006.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A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 [5] KBS news, <http://news.kbs.co.kr/>, 2010. 05. 03.
- [6] J. S. Han, et al., "A study on the state of drinking among the public service worker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2, No. 1, pp. 145-154, 2011.
- [7] M. S. Yoon, et al., "Effects of intention for moderate drinking and drinking environment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0, No. 2, pp. 35-50, 2009.
- [8] S. K. Chung, "The influence of Korean drinking culture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alcohol on risky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 Korean Alcohol Science, Vol. 7, No. 2, pp. 1-16, 2006.
- [9] F. J. Dunne, et al.,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morbidity among alcohol misusers", *Comper Psychiatry*, Vol. 34, pp. 95-101, 1993.
- [10] K. D. Stein, et al.,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y priming and mood manipulation on subsequent alcohol consumption", *J.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9, pp. 106-115, 2000.
- [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ttp://www.mohw.go.kr/front/mw\\_sch/index.jsp](http://www.mohw.go.kr/front/mw_sch/index.jsp), 2011. 10. 11.
- [12] S. S. Kim, et al., "Changes in alcohol use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2006-2008",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0, No. 2, pp. 75-88, 2009.
- [13] W. J. Lee, "Alcohol dependency of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21, pp. 67-86, 2004.
- [14] S. S. Chun, et al., "Operation and Evaluation of prevention programs for problem drinking in the university",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3, No. 1, pp. 53-86, 2002.
- [15] Y. M. Lee, et al.,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and drinking on the campus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 Vol. 15, No. 2, pp. 250-256, 2008.
- [16] H. S. Kim, et al., "The relationship of impulsivity and negative evaluation to alcohol use in the college women",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Vol. 13, pp. 21-27, 2009.
- [17] J. K. Kim, et al.,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related behavior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Daegue: A comparison of 1999 and 2009",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9, No. 3, pp. 347-588, 2010.
- [18] S. S. Chun, et al., "Comparison of alcohol use among Korean and U.S.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7, No. 1, pp. 1-11, 2006.
- [19] S. J. Suk, et al.,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J. of Koreaen Alcohol Science*, Vol. 5, No. 2, pp. 7-35, 2004.

---

**김 광 환(Kwang-Hwa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

**한 진 숙(Jin Sook Han)**

[정회원]



- 199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여성건강, 미혼모